연중 제24주일 강론(2019년 9월 15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 한 닢을 찾는 어느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 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 자비,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온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당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부하고 있었고, 구원의 첫번째 순위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아주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희망을 열어주십니다. 죄인들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희망 없이 그저 하루 하루 연명해 가는 사람들, 하루 살이 같은 인생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사람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났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하느님 구원의 문은 자기들에게만 열려있다고 믿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네들만이 누려왔던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고 지혜롭게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이런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입니다. 반면에, 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 아들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모습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갖은 불평을 다 합니다.

이 큰 아들의 마음도 이해할만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동안 열심히 일만 하고 착하게 살았던 큰 아들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스스로 의롭고 올바르다고 자부하는 내가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편 없고 별볼일 없다고 여겼던 다른 사람이 인정받게 되면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은 카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합니다. 카인은 자기의 제물이 당연히 아벨의 제물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자만 했고, 아벨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느님은 카인의 교만보다는 아벨의 겸손을 반기신 겁니다. 결국, 카인은 서운함과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큰 아들은 자신이 작은 아들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훌륭한데, 형편 없다고 여겼던 작은 아들이 사랑 받는 것을 보니까 서운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랑을 받으니까 잘못된 정의감에 불탑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며칠 전 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단죄 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남을 단죄하지 마라. 심판 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남을 심판하지 마라. 용서 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용서하거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단죄하려하고, 평가하려하고, 심판하려합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죄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잘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없는 죄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아 나서고, 한 부인이 잃어버린 은전 한닢을 찾아 나섭니다. 반면에 탕자의 비유에서 자비로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끌고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아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고 돌아올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작은 아들이 깊이 뉘우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은 작은 아들의 선택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갈지 말지, 회개할지 말지 그 선택과 결심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강제로 회개하라고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인내심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하느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옹졸하고 고집세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고, 내적 평화의 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수녀님은 중학교 사춘기 때 청소부 아저씨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직했고, 그 한결같은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청소부 아저씨와 결혼은 못하더라도 청소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에 ‘청소부’라고 썼다가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셔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녀님은 그냥 장래 희망을 ‘교사’라고 바꾸어 썼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소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맡은 일이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수녀원 마당을 청소할 때 ‘하느님은 내 소원을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구나!’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꿈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꿈도 수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수녀님은 청소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도 사랑과 행복과 평화로 가득차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때 가장 먼저 뛰어 나와서 반겨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자비로운신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돌아갈지 말지, 회개할지 말지, 영원한 천상의 행복을 받을지 말지 그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